만장일치 3표차이로 놓친 이정후 'MVP'…신인왕정철원

KBO 시상식…이종범과 함께 사상 첫 부자 MVP 정철원, 6년만에 중고 신인왕…두산 선수 12년만

타격 5관왕을 차지하며 리그 최고의 타자로 군림한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가 리그 최 고의 별로 우뚝 섰다.

이정후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수상자로 호명됐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 각 지역 언론사 소속 취재 기자들의 투 표에서 이정후는 유효 투표수 107표 가운데 104표를 획득, 압도적인 표 차로 MVP를 거머 쥐었다.

나머지 3표 중 2장은 이대호(롯데 자이언 츠), 1장은 안우진(키움)이 받았다.

올해부터 점수제가 아닌 다득표제로 선정 방식이 바뀌었다. 규정이닝 또는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이거나 개인 타이틀 부문별 순위 10 위 이내의 선수가 모두 후보였던 지난해와 달 리 리그 부문별 타이틀 홀더 9명과 그 외에 뛰 어난 활약을 보여준 7명을 더해 16명이 후보 에 올랐다.

MVP 상금은 1000만원이다.

이정후가 MVP를 수상하면서 KBO리그 40 년 역사상 최초로 부자(父子) MVP가 탄생했 다. 지난해 이정후가 타격왕에 올라 '부자 타격 왕'이 탄생한데 이어 또 집안 경사다.

이정후의 아버지인 이종범 LG 코치는 프로 데뷔 2년차이던 1994년 타율(0.393), 안타(196 개), 득점(113점), 도루(84개), 출루율(0.452)에서 1위를 차지해 사실상 5관왕을 차지했고, 그해 MVP까지 품에 안았다.

국내 선수가 MVP를 수상한 것은 2018년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 이후 4년 만이다. 2019년 에는 두산의 조쉬 린드블럼, 2020년 KT 위즈의 멜 로하스 주니어, 2021년 두산의 아리엘미란다가 MVP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히어로즈 구단 소속 선수가 MVP가 된 것은 2014년 서건창 이후 8년 만으로, 통산 4번째 다. 2012~2013년 당시 히어로즈 소속이던 박병호(현 KT)가 2년 연속 MVP를 품에 안은 바 있다.

그는 142경기를 뛰며 타율 0.349, 193안타 23홈런 113타점을 작성했다. 타율·안타·타점· 출루율(0.421)·장타율(0.575) 부문을 모두 석 권하며 5관왕을 차지했다.

시상 항목으로만 따졌을 때 5관왕 이상에 오른 것은 2010년 전무후무한 타격 7관왕을 달성한 이대호(은퇴)에 이어 이정후가 두 번째다.

시상 여부를 떠나 역대 타격 5개 부문 1위에 오른 것도 이정후가 역대 7번째다.

이정후는 MVP 외에도 타율, 안타, 타점, 장 타율, 출루율상을 모두 쓸어담은 덕에 6개의 트로피를 수집했다.

2017년 신인왕을 거머쥐었던 이정후는 "6년 전 신인왕을 받으러 왔을 때 MVP를 수상하는 선배님들을 보고 언젠가 저 상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이 와서 영광스럽다"고 백 찬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감사한 분들을 하나하나 호명한 이정후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린다.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신데 MVP를 수상하면서 작은 효도를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3표를 놓친 것은 전혀 아쉽지 않다"고 말한 이정후는 "항상 아버지 아들로 살아왔는데 오늘을 계기로 제 야구 인생은 제 이름으로 잘살아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MVP 수상을 놓친 안우진은 평균자책점, 탈 삼진상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올 시즌 30경기 에 등판해 196이닝을 던진 안우진은 15승 8패 평균자책점 2.11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과 탈 삼진(224개) 부문 1위를 휩쓸었고, 다승 부문 에서도 2위에 자리했다.

특히 안우진은 최동원이 1984년 작성한 역 대 국내 투수 한 시즌 최다 탈삼진(223개) 기 록을 넘어섰다.

두산 베어스에서 뛰었던 외국인 투수 아리 엘 미란다가 2021년 작성한 역대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225개)에 불과 1개 모자랐다.

생애 한 번 뿐인 신인왕의 영예는 두산 우완 정철원에게 돌아갔다. 정철원은 기자단 투표



에서 정철원은 유효 투표수 107표 중 74표를 획득, 24표를 얻은 김인환(한화 이글스)을 무려 50표 제치고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2018년 2차 2라운드 20순위로 두산에 지명 된 정철원은 입단 5년 차에 신인왕을 품에 안 았다.

신인상 후보는 2022년 입단 선수 및 최근 5년 이내(2017년~2021년) 입단한 선수 중 누적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을 넘지 않는 모든 선수(해외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됐던 선수는 제외) 중에서 추려졌고, 지난해까지 1군 등판 기록이 없던 정철원도 후보에 포함됐다.

중고 신인이 신인왕을 수상한 것은 2016년 당시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었던 사이드암 신 재영 이후 6년 만이다.

2017년부터는 '순수 신인'인 이정후(키움 히어로즈), 강백호(KT 위즈), 정우영(LG 트윈스), 소형준(KT), 이의리(KIA 타이거즈)가 프로 입단첫 해에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정철원의 수상으로 두산은 2010년 포수 양의지 이후 12년 만에 신인왕을 배출했다. 두산 선수가 신인왕에 오른 것은 1999년 홍성훈, 2007년 임태훈, 2009년 이용찬, 2010년 양의지에 이어 5번째다. 아울러 2019년 정우영부터올해 정철원까지 4년 연속 투수가 신인왕을 차지하게 됐다.

정철원은 두산 입단 이후 한때 육성선수로 전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한 번도 1군 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채 2019년 11월 육군 8 군단 포병으로 입대했다.

지난해 6월 전역한 정철원은 올 시즌 개막 전까지 1군 전력이 아니었지만, 5월초 1군 무 대를 밟은 이후 두각을 드러내며 필승조에 자 리매김했다.

정철원은 올해 58경기에서 72%이닝을 책임 지며 4승 3패 23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3.10 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23홀드는 2007년 임태훈이 세운 20홀드를 넘는 KBO리그 데뷔 시즌 최다 홀드 신기록이다. 정철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철원은 수상 후 "경쟁 상대인 (김)인환이 형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아프지 않고 시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생각으로 뛰 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한 정철원은 "고교 선배인 (김) 광현이 형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투수 부문에서는 LG에서만 3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올해 16승을 거둔 케이시 켈리가 승리 상을 받았고, 42세이브를 따낸 고우석이 세이 브상을, 35홀드를 거둔 정우영이 홀드상을 수

◇2022 KBO리그 부문별 수상자

- ▲최우수선수상(MVP)= 이정후(키움)
- ▲최우수신인상=정철원(두산) ▲ 펴그다채저 타사지사- 아오지(키)
- ▲평균자책점·탈삼진상= 안우진(키움)
- ▲승리상=케이시 켈리(LG) ▲세이브상=고우석(LG)
- ▲홀드상=정우영(LG)
- ▲승률상= 엄상백(KT)
- ▲타율·안타·타점·장타율·출루율상=이정후
- ▲득점상=호세 피렐라(삼성)
- ▲도루상= 박찬호(KIA) ▲홈런상= 박병호(KT)
- ▲심판상=박기택심판위원
- ◇2022 퓨처스리그 북부리그 수상자
- ▲평균자책점상=이지강(LG)
- ▲평균사책점상=이시강(L(▲승리상=송윤준(한화)
- ▲타율상=이주형(고양)
- ▲홈런상= 김민혁 홍성호(이상 두산) 주성 원(고양)
- ▲타점상=정민규(한화)
- ◇2022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수상자
- ▲평균자책점상=김기훈(상무)
- ▲승리상=김민규이상영이원준(이상상무)
- ▲타율상=최원준(상무)
- ▲타점상=최준우(상무)
- ▲홈런상=오장한(NC)

상했다. 켈리와 고우석, 정우영 모두 이번에 처음으로 타이틀 홀더가 되는 기쁨을 맛봤다.

승률상은 0.846을 기록한 엄상백의 차지가 됐다.

타자 부문에서는 이정후가 독식한 5개 부문을 제외하고 홈런상은 박병호(35홈런), 득점상은 호세 피렐라(삼성 라이온즈·102득점), 도루상은 박찬호(KIA 타이거즈·42도루)가 받았다.

특히 2012~2015년, 2019년 홈런왕에 올랐던 박병호는 개인 통산 6번째로 홈런상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박찬호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도루왕을 탈환했다. KBO리그 2년차인 피렐라는 이번에 처음 타이틀 홀더가 됐다.

뉴시스

FACTOR STATES OF THE STATES OF

전남도청 펜싱 사브르팀이 입상후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지수, 전은혜, 최세빈, 홍하은)

전남도청 펜싱 최세빈, 알제리 월드컵 단체전 '동메달' 획득

한국 펜싱 사브르 남·녀 대표팀 2022-2023 시즌 첫 국제대회서 우승, 3위 입상

전남도청 펜싱 사브르팀 최세빈이 국제펜싱연 맹(FIE)월드컵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와 전남펜싱협회(회장 윤영철)는 14 일(한국시각)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국제펜싱 연맹(FIE) 시즌 월드컵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전남도청 최세빈이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 었다고 밝혔다.

최세빈(전남도청)은 전은혜(대구광역시청), 윤지수, 홍하은(이상 서울특별시청)으로 구성 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전에서 그리스 를 만나 45:27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이후 8강전에서 우주베 키스탄에 45:33으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 했다. 준결승에서 '펜싱강호' 이탈리아를 만나 32:45로 아쉽게 패하며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 했다.

김기평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국제대회 에서 전라남도의 위상과 명예를 세계에 널리 펼쳐준 최세빈 선수에게 축하과 감사를 전한 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철 전남펜싱협회장은 "2022~2023 첫 국제대회에서 우리 전남선수가 이러한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전남을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다"며 "전남펜싱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자 사브르 대표팀인 김정환, 구본길 (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대전광역시청), 도경동(대구광역시청)은 16강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45-17로 대파, 8강전에서 '숙적' 일본을 만나 45-31로 승, 준결승에서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에 45-19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쳐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이란을 45-34로 제압하며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체고 체조 문건영, 국제대회 6관왕… '제2의 양학선'

광주체육고등학교 체조 문건영이 세계대 회에서 금메달 6개를 목에 걸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체고 문건영이 체코 브루노에서 열린 국제 주니어 인터내셔널 체조대회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최국 체코 등 7개 국가, 7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문건영은 단체 전 금메달을 수확하며 첫 국제대회 부담을

이어 문건영은 잇따라 출전한 마루와 안마, 평행봉, 철봉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금메

달 4개를 더했으며 종합점수에서도 또래 유럽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6

관왕에 올랐다. 문건영은 지난 8월 전국체조대회에서 안 마와 도마, 평행봉에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개인종합에서도 1위를 기록해 4관왕을 차

광주체고 "문건영이 국제 대회 첫 출전에 도 불구, 자신만의 기술로 좋은 성적을 거뒀 다"며 "세계적인 선수인 양학선의 뒤를 이 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전남도청 우슈팀,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대회서 단체전 준우승

등타(넘어뜨리기) 단체전 2위·남도(한쪽칼날 표연동작) 2위·남권(맨손표연동작) 3위·태극검(양쪽칼날 표연동작) 2위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슈팀이 전국 우 슈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우슈팀이 '제15 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우슈대회'에서 등타 (넘어뜨리기) 단체전 2위, 남도(한쪽칼날 표연 동작) 2위, 남권(맨손표연동작) 3위, 태극검(양쪽칼날 표연동작) 2위로 총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022년 마지막 대회인 '제15회 대한체육회 장배 전국우슈대회'에 참가한 전남도청 우슈 팀은 등타 단체전(신설) 종목에 참가하여 충북 개발공사와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철환(전남도청)은 먼저 2점을 획득해 진민섭(충북개발공사)을 이겼고, 김민 수(전남도청)는 함관식(충북개발공사)에게 큰 기술을 구사했지만 점수로 연결되지 않았고, 체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해 1:1의 상황 이 되었다. 고은철(전남도청) 선수는 송기철 (충북개발공사) 선수에게 아쉽게 패해 최종 스 코어 2:1로 등타 준우승을 차지했다. 투로 종목에는 2022년 국가대표선수들이 전원 출전 하였고, 김영준(전남도청), 장민규(전남도청)는 내년 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C난도(최고난도)를 시도하는 등다양한 기술을 시도하였고,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다.

김기평 전남도청 스포츠산업과장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둔 전남도청 우슈팀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은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라 남도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우슈협회 윤병용 회장은 "2022년 마지막 대회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에 열릴 아시안 게임에서는 전남도청 우슈팀 선수 중에 애국 가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청 우슈팀은 2019년도 창단 이후 각종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2019년 세계우슈선수권대회에서 주장 윤웅진(전남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슈팀 단체사진 (왼쪽 아래부터 김민수, 하철환, 장민규/윗줄 왼쪽부터, 김영준, 고은철, 장보근 코치)

도청)이 산타-56kg에서 동메달을 획득는, 제 100회 전국체전에서 금 1, 은 1, 동 1개 획득,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금 2, 은 1, 동 1개를 획득하는 등 국가대표를 배출 및 국위선양, 전 남체육의 위상을 높이며 전국 강팀으로 성장하였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